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교육을 통해 깨달은 은퇴 후 삶의 중요성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설립연도	1997년
업종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서비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2022년 의무화 사업장)
홈페이지	www.withmind.or.kr
컨설팅 구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컨설팅 수행기관	㈜맥시머스

참여 배경

· 다양한 업무 형태를 지닌 종사자들이 많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려움

· 법인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기관에서 각각 채용하는 형태

·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

컨설팅 포인트

·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구체적으로 설계

· 진로설계교육 만족도 조사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다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은 대구에 위치한 비영리기관으로 현재 20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 활동을 시행하며 지역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체적·종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나눌 자원이 있는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자원이 필요한 이들은 자원을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1997년 설립된 함께하는마음재단의 사업 분야는 노인복지, 자활복지, 지역복지로 구분된다. 현재 실내·외 경로급식 지원, 재가노인복지, 방문요양사업 기관,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받는 노인 신고·보호기관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며 고령사회 어르신의 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보호를 통한 노인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기관,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여성 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 자활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공동체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생활시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및 다문화 가족지원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다양한 업무 형태로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어려워

함께하는마음재단은 2020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은퇴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 및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먼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활근로자, 조리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업무 형태를 지닌 종사자들이 많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사인 법인사무국이 산하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산하시설에서 각각 채용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직원들의 욕구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자활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참여자로 보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더불어 현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아직 제도운영 초기단계이다 보니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예산확보도 어려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21년 기초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참여자 부재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의 현황에 맞는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하는마음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구분	과정	평가
1일 차	**[변화관리 - 적응과 대응]**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과 대응방법 및 자기관리 도구 활용법 **[진로설계 - 자기이해]** 진로적성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기이해	- 변화가 많은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정보로 용기가 생긴다. - 평소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늦게나마 미래에 대한 성찰이 되었고 마음의 울림을 받았다.
2일 차	**[생애진로설계]** 경력관리 및 진로설계를 위한 자산 활용 **[진로설계 - Case Study]** 신중년, 일의 의미와 경력관리 / 경력 옵션 사례 학습 등	- 카드를 활용한 자기진단 방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 막막했던 재취업에 대한 꿀팁을 얻어 갈 수 있었다. - 워크넷을 활용한 자기탐색으로 직업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3일 차	**[진로설계 - 목표설정]** 진로 목표설정의 이해 / 목표설정을 위한 활용 도구에 대한 이해 및 활용법 **[진로설계 - 정보탐색]** 경력목표에 따른 정보 탐색 방법 등	- 취업정보 탐색으로 공공일자리 및 대구지역의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4일 차	**[생애진로설계 - 네트워킹]** 관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 관계 형성의 전략 이해 **[생애진로설계 - 작성 실습]**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정리 / 진로설계서 작성	- 진로설계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어 좋았다. - 변화하는 시대와 경제 흐름을 꼭 읽어가며 생애진로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은퇴 후의 삶을 구상하다

컨설턴트를 통해서 우선 기관의 현황분석 및 진단을 실시해 과정체계 및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실행 프로세스를 정리한 뒤에 기관 및 산하시설 소속 임직원 중 서비스 대상자 7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교육이 진행되었다. 4일간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적용한 모델에 대해 논의되었다.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유용성' 관련 문항의 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진로설계 교육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은퇴 후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구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 실행 계획을 수립하다

함께하는마음재단은 2021년 1차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적 제약 요건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와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22년 진행된 2차 컨설팅을 통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관의 현황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퇴직예정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대상자들의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나 효과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더 많은 퇴직예정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되어줄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을 통해 기관도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예정자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퇴직을 앞둔 종사자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근무 환경 개선과 만족도 향상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구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파일럿 프로그램(58세+) 운영에 그치지 않고 50세, 55세 과정을 비롯해 30~40대 대상까지 확대 운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Consulting Point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_ ㈜맥시머스

기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적극 검토해 49개 문항을 설계했습니다. 참여자의 근로 형태로 인해 2일 집중과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교육을 매주 2시간씩, 4주간의 과정으로 전환한 덕분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컨설턴트와 협업하고자 했고, 그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해결에 나선 덕분에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Interview

은퇴 후, 목표와 꿈에 대해 생각하다

이지은
통번역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모를 때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만큼 세상이 열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표를 세우면 길이 보일 테니 은퇴 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불어 교육 담당자와 강사님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도전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운영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 받아

정민희
팀장

처음 재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맡고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던 중,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알게 되어 2021년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퇴직예정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실제 진로설계교육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참여자분들의 긍정적인 퇴직 준비를 도울 수 있었고,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가 돌아왔습니다.